0818 Linker 회고

**0818\_프로젝트 4 로그설계 2팀\_Linker 회고록**

* 일시 : 2025.8.18. 월 9:00-12:30
* 참석자 : 김경현 이정원 박현근 원유정 유용혁
* 회고방법 : KPT 회고록
  + Keep (유지할 점): 프로젝트에서 만족했고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은 부분
    - 경현 : 초반 기획단계에서 정리가 빨랐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어 좋았다. 프로젝트 초반에 규칙을 정해두고 지키려 노력한 것도 좋았다. 각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보고 싶었던 역할 (발표, 노션활용 등) 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좋았다.
    - 정원 : 아이디어 공유가 좋았다. 혼자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다같이 논의했다는 점이 좋았다.
    - 유정 :
    - 용혁 :
    - 현근 :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 프로젝트를 풍성하게 만든 것이 좋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생각과 다르게 연령별, 성별 등에서 차이가 없이 나왔음에도 이를 분석하는 데 해결책을 찾아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정리=> 의견 공유/ 논의 과정 / 규칙 준수노력/ 역할에 최선을 다함 / 새로운 시도

* + Problem (문제점): 프로젝트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거나 아쉬웠던 점
    - 경현 : 의견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 데이터 분석 전 ‘왜 이 분석을 진행하는지’ 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듯 하다.
    - 정원 :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못 써서 죄송하고 아쉬웠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중간에 초기 진행과정을 다시 구체화해서 정리해야 해서 시간이 걸렸던 점.(피드백을 더 일찍 받고 반영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 유정 :
    - 용혁 :
    - 현근 :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간의 간극이 컸다. first\_lecture등의 data가 예상과 달리 최초 수강 일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
    - 정리 => 합의 필요 / 데이터분석에 대한 이해 / 초반 구체화

* + Try (시도할 점):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조직이나 다른 팀이** 유사 프로젝트를 할 때 시도해 볼 **권장 사항 또는 제안**
    - 경현 : 중간 체크 시간을 많이 가졌음에도, 팀원 각자의 이해가 달랐던 부분이 있어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보고 싶다. 이번 프로젝트는 데이터 자체가 말하는 내용보다는 팀원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이 정의에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더 썼어도 좋았을듯.
    - 정원 : 초기 구체화가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필요한 데이터분석만 할 수 있게 데이터분석 방향을 잡는 법을 더 연습해야할 것 같다.
    - 유정 :
    - 용혁 :
    - 현근 : 프로젝트 진행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단계와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상상의 나래를 어디까지 작성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어려워하는 사람과 펼치는 사람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면 좋겠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목표 / 진행 / 합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단계로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 정리 => 프로젝트 이해에 대한 합의 및 공유 / 구체화 방안과 정리 / 데이터분석 방향성 잡기 / “목표 / 진행 / 합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단계(합의 내용 정리)
* 팀원피드백
  + 경현
    - 정원 : 중간중간 이해의 수준을 물어봐주시는 점이 세심하시고 좋았다. 굉장히 전체를 보시면서도 세세한 것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신기했고 굉장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디테일을 보시는 체력이 남다르시다. 좀 더 다른 팀원에게 위임해주셔도 될 것 같다. 혼자 많은 부분을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 팀원들이 맡은 역할에 대한 업무를 더 부여해주시면, 좀 더 원하시는 업무를 더 잘 해주실 것 같다. 설명할때 핵심위주로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
    - 유정 :
    - 용혁 :
    - 현근 : 본인이 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게 보였음. 다만 설명이 길어서 정리되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음(팀원의 이해가 안되는 구간은 설명보단 팀원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 정원
    - 경현 : 시도해보고 싶은 역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점이 멋있었고, 중간에 의견을 피력해야할 때에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점이 좋아서 이 부분을 다음 프로젝트시에도 더 피력하시면 좋을 것 같다. 리더십이 있으시다.
    - 유정 :
    - 용혁 :
    - 현근 : 다음 번에 같은 조가 된다면 가장 작업 빨리 끝내는 조가 되어 봅시다.
  + 유정
    - 경현 : 힘든일과 수고를 앞장서서 정리해주시려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어 든든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려는 부분이 좋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을 짚고 가시는게 좋다. 타인과 협의할 때 의견을 더 구체화해 전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
    - 정원 :
    - 용혁 :
    - 시간을 들이더라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할 것을 하고 넘어가야겠다현근 :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았음. 다만 어느 순간부터 부연 설명이 더 어렵거나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어려웠음
  + 용혁
    - 경현 : 처음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는데는 시간이 걸리시지만, 전개된 상황/의견에 대한 비판적 & 논리적 관점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수행해야할 역할이 주어져도 빼는 거 없이 잘해주신다.
    - 정원 : 은근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 도움이 많이 되는 의견을 잘 주시고 계세요! 이번에 데이터 분석 맡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해주신 것도 잘하셨는데 왜 여태 안 하셨는지 의문..ㅋㅋ
    - 유정 :
    - 현근 : 초기에는 속도나 회의참여에 어려워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이 편해지는 것이 좋았음
    - 준수 : 준수님이 그만빠지래요 222
    - 근찬 : ㅇㅇ
    - 혜지 : 태도가 불량함
  + 현근
    - 경현 : 비즈니스 기획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초반 어학앱 아이디어에 수익모델을 구체화해 데이팅 기능 연결해주신 것도 좋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정상 이해속도가 다른 부분으로 인해 의견 개진을 많이 못해주신 듯해 아쉬웠지만- 다음기회에 현근님 아이디어로 전개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는 너무 좋지만, 왜 이 분석을 하는지 이해와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무도 막지 않는다!!!! 쉴 때는 편하게 쉬어주심 좋겠다. ㅋㅋㅋㅋ 미적/디자인 감각있으십니다.
    - 정원 : 쉬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신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 편하게좀쉬세요!!!!!!ㅋㅋㅋㅋ 당신은 자유가 필요하세요…재택 좀 어울리실 듯…ㅋㅋㅋ
    - 유정 :
    - 용혁 :
* 스토리텔링
  + 문제 배경 → 시도 과정 → 실패와 극복 → 최종 교훈의 스토리텔링 구조
  + 가장 큰 병목구간 에피소드 (D-1 의견대립)

1. 문제 배경
   * + - *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
         * 팀원 각자의 현재 프로젝트의 작업상황과 문제정의에 대한 이해도도 달랐다.
         *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정의/합의가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의견을 피력하는데 집중되고 과열된 상황
         * 의견 피력하는 팀원들의 동시다발적인 논쟁과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
         * 다른 팀원들이 빠른 속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 상호 소통 방법의 문제
         * 정원님은 이해 못했음에 대한 표정이 계속 진행함
         * 용혁님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음에 대한 어려움을 답답함을 제기함
         * 경현님과 유정님이 양측에서 대화하며 달리는 걸 보임
         * 현근님은 하루 빠지게 되면서 회의 및 작업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2. 시도 과정
   * + 모두가 잠깐 논쟁을 멈추었다.
     + 서기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팀원이 맡아 정리하면서 진행하려고 함
     + 한 단계씩 정리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를 수렴해서 속도를 줄이고 서로의 이해가 같은지 확인하는 시간을 늘렸다.
3. 실패와 극복
   * + 모두가 있는 로비에서 약간의 큰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 민망했다.
     + 사실 싸운 건 아니었는데…
4. 최종 교훈
   * + - * ‘중간점검(정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되었다.
         * 미리 규칙을 제정할때 의사소통방식에 대해서도 정하면 좋을 것 같다.

스토리텔링 회고

### **Linker 스토리텔링 회고**

### **문제 배경**

프로젝트가 막바지로 향하던 D-1, 팀은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 섰다. 그러나 각자의 작업 상황과 문제 정의에 대한 이해도는 달랐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정의·합의가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원들은 각자 의견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논의는 빠르게 전개되었고, 동시에 여러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과열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정원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하지 못했고,
* 용혁님은 답답해하는 마음을 따로 풀었고,
* 경현님과 유정님은 빠른 속도로 양쪽의 대화를 이어받으며 계속 달리는 모습이었다.
* 하루 결석했던 현근님은 회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팀 내에서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소통 방식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 **시도 과정**

이때, 모두가 잠깐 논쟁을 멈추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회의는 서기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팀원이 정리를 맡으며 이해도를 같이 하기 위해 애썼고, 한 단계씩 내용을 정리하며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팀은 속도를 줄였다. 서로의 이해도를 맞추기 위해 중간 점검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 **실패와 극복**

모두가 모여 있는 로비에서 벌어진 작은 소란은 순간적으로 민망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갈등이 아니라 “속도와 이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혼란이었다.

민망함은 잠시, 팀은 다시 균형을 찾았다. 정리 과정을 거치며 오히려 서로의 이해도를 맞추는 계기가 되었고, 남은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 **최종 교훈**

이 경험은 팀에게 명확한 교훈을 남겼다.

1. **중간 점검 및 합의의 중요성** – 팀원간 의견을 조율할 때에도 모두의 이해가 같은지 정리하는 ‘중간점검’시간과 모두의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합의도출시간’을 별도로 가지면 오해가 줄어들 것이다.
2. **의사소통 규칙의 필요성** – 초기에 의사소통 방식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소란을 막을 수 있다.
3. **단계적 정리의 가치** –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한 단계씩 충분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 프로젝트 전체를 안정적으로 완수하는 길이다.